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조 경 민

(마포희망 나눔)

개요

어디에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을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

도시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

1,000~3,000명 정도 모여 삽니다

성미산마을



개념

교육

성미산마을어린이집 4곳
성미산마을방과후
마포초교(성미산학교)
마을마을터
마을학원·공립학원

경제

마포우리성미
동네루터
작은나무
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

복지

마포희망나눔
동네마을
의료상담

환경

성미산대천위
자중자후로
마을환경가
복합가정

문화

마을극장
마포FM
마을축제
동아리 10여개
마을아카이브
마을신문
문화교육공간

자치

(사)사람과마을
마포마을공동체
마을경제대표자회의

협력

민중의길
동네마을
마포로인의길
마포로인
마을경제대표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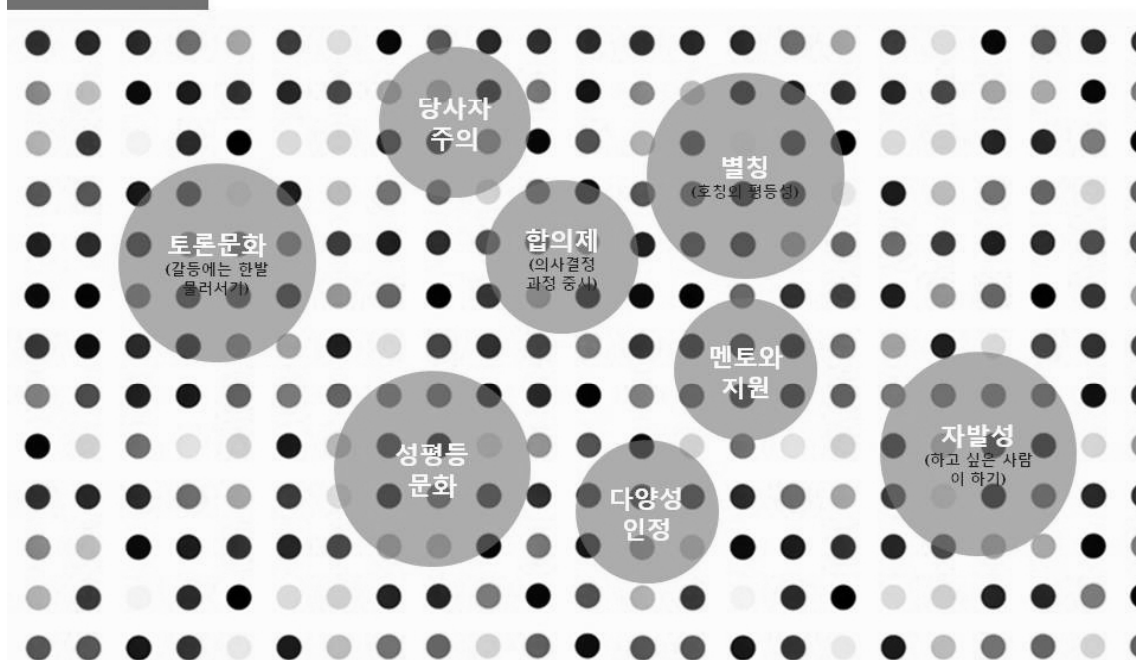
지향

우리가 꿈꾸는 마을은?



문화

차이와 공존 - 배려와 연대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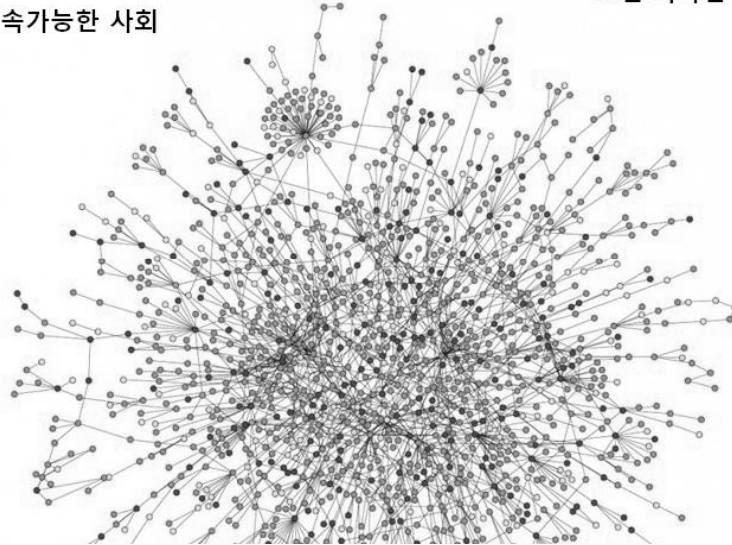
더불어 살기

호혜적 관계망

지속가능한 사회

자발성의 씨앗에
나눔의 물을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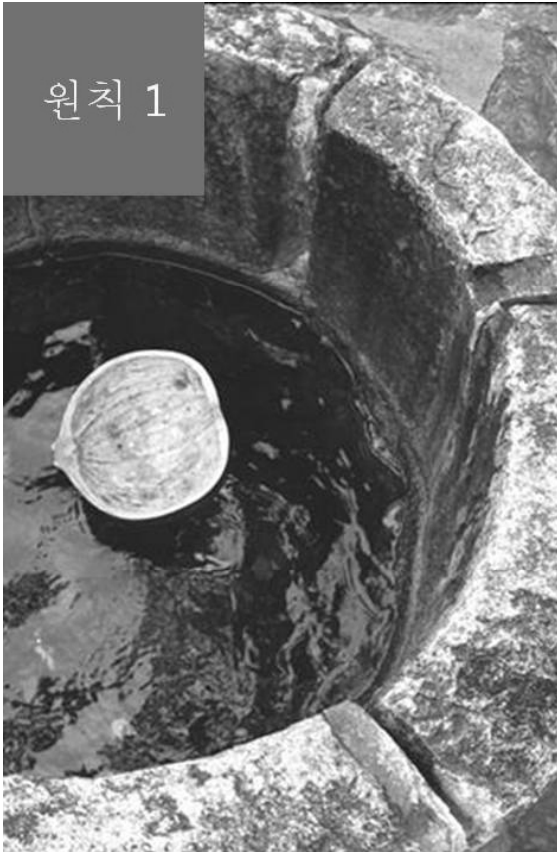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 펀더멘탈
소셜 디자인



구조



원칙 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당사자중심

-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
- 멘토는 멘토일 뿐
- 지속가능성은 당사자의 결의와 시행착오로부터

작은나무 카페

-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들 : 베스킨라빈스를 먹일 수는 없다
- 5명의 엄마들 1,000만원씩 출자
- <진환경아이스크림 전문점 그늘나무> 창업, 모험을 시작하다
- 역시 장사는 만만치 않고 엄마들의 풀나눔이 쉽지 않다
- 한 엄마가 책임지는 1인 가게로 전환, 이후 한동안 문을 닫다
- 성미산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의 체험과 교육을 위한 가게로 전환
- 계속되는 시행착오, 마을 몇몇의 엄마,아빠, 마을카페를 제안하다
- 마을사람들의 소액출자로 마을카페 <작은나무> 개업
- 마을에 임터가 생긴다

한땀두레 - 바느질을 좋아하는 엄마들

비누두레 - 아토피가 걱정이었던 엄마들

성미산밥상 - 요리사가 꿈이었던 아빠

마을아카이브 - 마을역사가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운 1세대 아빠

원칙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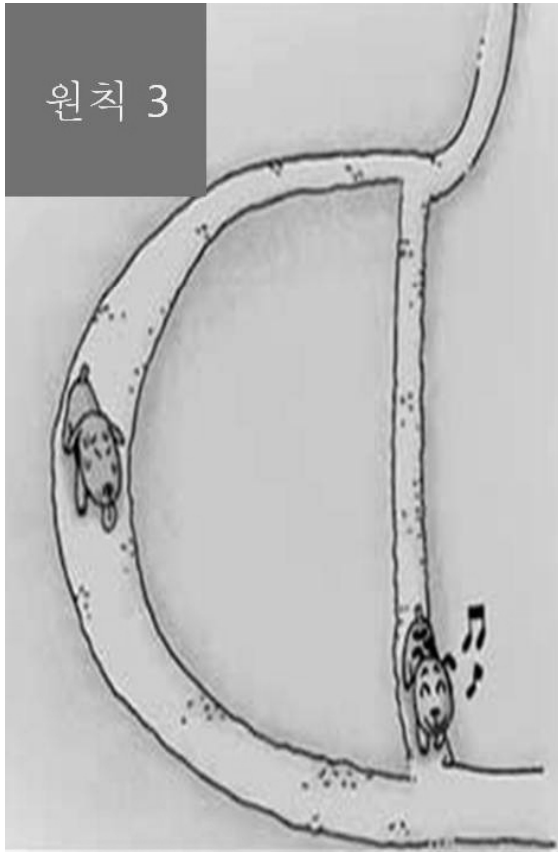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제

-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 한 사람의 열 걸음, 열 사람의 한 걸음
- 문턱을 낮추면 참여하기가 쉽다

탈락의 문화가 아닌 더불어 문화

- 다수결 제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
- <마을>이라는 곳은 빨리 무언가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과 달리 느리지만 하나하나 쌓이는 과정이 중요
- 합의는 대체로 낮은 자원에서 동의를 구하게 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원칙 3



안되면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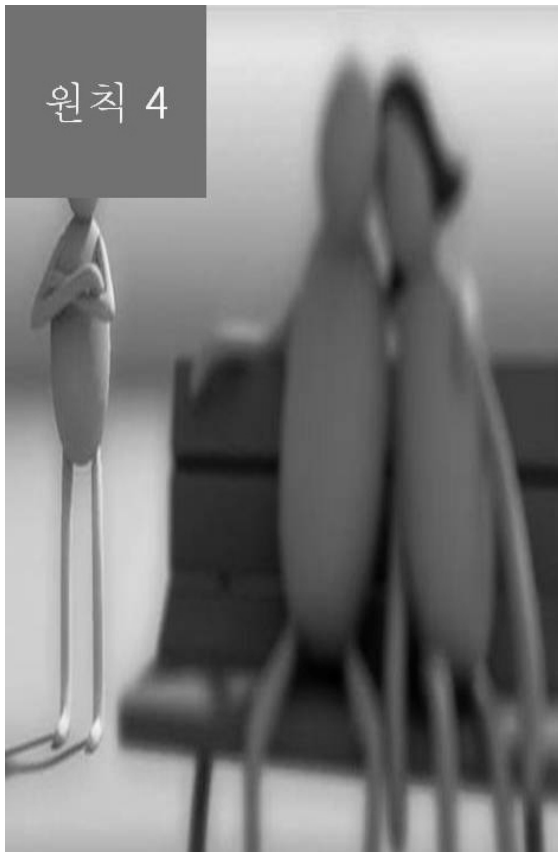
유연하지만 한결같이

- 원칙은 의미있게 깨질 때 아름답다.
- 경험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 고지를 점령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네?

대동계

- 실험을 만들어보자
- 법적 절차 까다로운데다 행정과 운영에 발목 잡히지 않을까?
- 그냥 옛날 시골의 <계> 같은 건 어때?
- 켓몬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 그럼 다른 방식도 한 번 생각해보자...
- 형식은 은행처럼 하고 노는 건 켓몬처럼...ㅎㅎㅎ

원칙 4



부러우면 지는거다

즐겁게... 당당하게

-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변하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자
- 그렇게 좋은 일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ㅠㅠ
- 중산층운동?...

공동육아가 가져다 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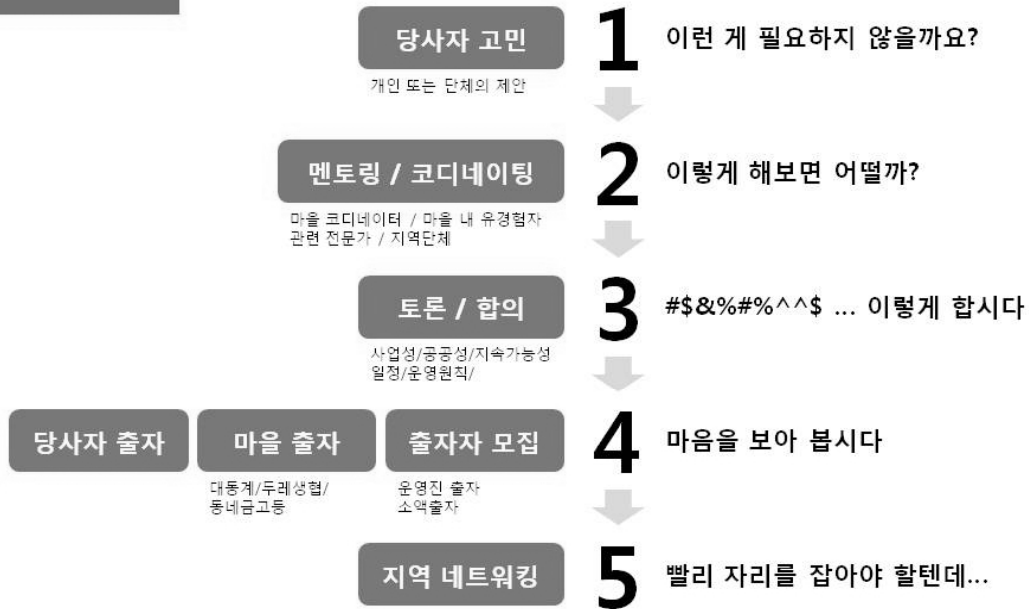
- 성미산 엄마아빠들, 주변 어린이집들을 괴롭히다
-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먹는 걸 신경 써야 하는데..."
- "여기는 유기농 먹이죠?"
- 주변 어린이집들, 친환경재료를 쓸 수 밖에 없다.
- 생협, 매출이 늘다

사회적 기업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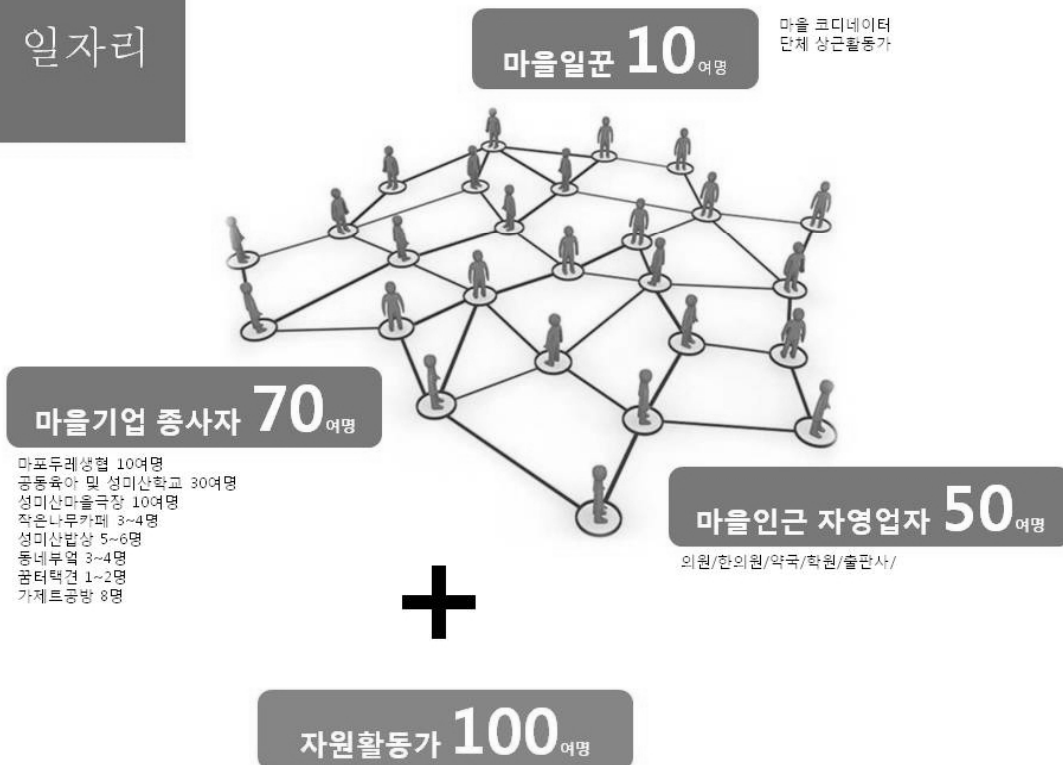
- 야, 너는 돈 좀 되는 일을 해라...
- 하다 보면 되겠지... 보람도 있고 좋잖아...
- 무한경쟁에 지친 경영자들, 술술 공감해하다.
- 잘 돼가?... 잘 버틴다?...
- 조금씩 좋아져... 이미지가 괜찮은 가봐^^
- 그런 건 어디 가야 정보 좀 알 수 있냐?
- 한 발짝... 사회적 걸음을 내딛다.

흐름

마을기업 Process



일자리



사례 1

성미산 대동계

성미산대동계는
우리가 같이
한 코 한 코 짜나가는
경제의 그물망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성미산대동계의 장점들이 살아나려면
여럿의 힘을 모아야겠죠.
성미산대동계가 활짝 꽃피우려면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들의 힘으로 일궈가려는 성미산대동계.
그 경제적 그물망, 신뢰의 그물 한 코 같이 드시렵니까?

가 입 신 청 서

- 1) 이름 :
- 2) 전화번호 :
주소 :
E-mail :
- 3) 매월 출자 금액 : 3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4) 은행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성미산대동계가 지향하는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회원이 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미 산 대 동 계
대 표 귀 하

2007년 태어나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경제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하려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바람들이 있었습시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
마을금고의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자,
의지들이 있었습시다.
2005년 8월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대신
성미산대동계라는 씨앗 하나 심었습니다.

자라다.

여럿의 관심이 축적한 물줄기가 되고
여럿의 참여가 마듯한 햇살이 되고
여럿의 나눔이 시원한 바람이 되어
성미산대동계는 자라났습시다.
2010년 현재 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시다.
성미산대동계는
회원들의 애경사와 친목을 쟁길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출자와 후원 등으로
마을의 뒷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든든한 성미산대동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동계의 조합원이 100명, 2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날이
반드시 와 성미산 지역 구성원들의 대동 세상을 만드는 큰 가동이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아직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지해가 보태지면 대동계는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시다...(성미산대동계 카페에 올린 계주의 글 중에서)

사례 2

성미산 동네금고

제1조 (명칭) 본회는 '성미산동네금고'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성부상조,
2. 회원들의 정착 및 성공,
3. 성미산마을의 다양한 경제 활동 지원,

제3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회원들의 경제적 안정망 구축을 위한 활동
2. 회원들의 정착 및 성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성미산마을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제5조 (회원 가입)

1.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가 정한 회원 상호간 안전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탈퇴)

1. 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해야 한다.

제8조 (연정망 구축사업)

1. 회원은 해당 회에서 가용 가능한 금액을 경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모아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해당 회원들의 실제 금액을 심사 후 대출해 준다.
3. 회원은 일체 금액을 본회에 예치할 수 있다.
4.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공동 경비 중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9조 (회원들의 정력적 성공을 위한 지원사업)

1. 회원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2. 회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3. 성미산마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총회와 운영위원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절반 이상의 참여와 절반 이상의
한성으로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를 두어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임원)

1. 본회는 대표, 총무와 2인의 운영위원을 둔다.
2. 감사 1인을 둔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대표는 본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총괄한다.
5.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 총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끝>

사례 3

동네부엌



2002년 5월
8명의 엄마들
유기농 반찬가게를 만들다



2008년
햄, 도시락등 식품제조공장 설립
생협등에 납품



200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식당급식



2011년
친환경도시락 전문점
<소풍가는 고양이> 멘토링, 협력



사례 4

되살림가게

되살림 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자원을 되살리고 환경을 되살리고 관계를 되살리는
되.살.림.가.게.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만든 재사용가게
녹색가게예요. 지역화폐인 두루가 통용되는 지역화폐 시범 사용 1호점!
자원활동가들이 요일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네요.

월화수목금토 요일을 달리해서 매장을 지켜주는 자원활동가들이 없다면
활동의 품을 받지 않고 보람을 가져가는 것으로 족한 자원활동가들이
없다면 되살림가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을까 싶어요.
수익을 내서 마포희망나눔을 통해 낮은 곳을 향한 나눔의 물로 흘러들고
마을에서 출자 받은 금액을 갚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마을의 또 다른 의미있는 공간에 출자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3시간만 되살림에 내어주고 보태줄 사람
되살림가게로 와서 딱 붙으세요. 전화번호 02)332-9550
문 여는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구요.
까페 주소 <http://cafe.daum.net/sungmisanshop>

되살림 지역화폐
1000 두루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0일 ~ 10월 12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3일 ~ 10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6일 ~ 10월 18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9일 ~ 10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22일 ~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25일 ~ 10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28일 ~ 10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31일 ~ 11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3일 ~ 11월 5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6일 ~ 11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9일 ~ 11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12일 ~ 11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15일 ~ 11월 17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18일 ~ 1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21일 ~ 11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24일 ~ 11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27일 ~ 11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1월 30일 ~ 12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3일 ~ 12월 5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6일 ~ 12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9일 ~ 12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12일 ~ 12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15일 ~ 12월 17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18일 ~ 12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21일 ~ 12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24일 ~ 12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27일 ~ 12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2월 30일 ~ 12월 31일



사례 5

성미산 밥상

-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라는 사업으로 친환경 식당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반영

- 성미산밥상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부모들의 자발적 사업

- 안심하고 언제나 찾아와 맛있고, 몸에 좋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초기출자자 10명 결함으로 2009년 봄 공동 모색 시작

- 요리강좌 및 친환경 식당 탐방 활동 등으로 1년 준비모임후 2010년 4월4일 오픈

- 90여 개인 및 단체의 출자로 이루어진 마을기업
- 마을 (학교, 터전) 가족들의 각종 모임 장소
- 즐거운 일터와 수익을 통한 확대 재생산, 마을의 인적 자원을 엮어 일터를 만든다.



김요리사의 요리, 네번째 강좌



새콤달콤 깐쇼새우 ~~

- 하늘날 - 9월 19일 (토) 오후 6시 - 8시
- 하늘곳 - 성미산학교 1층 미니샵
- 준비물 - 개인접시, 컵, 숟가락, 강좌비 1만원 (초등학생, 어른 모두 1인당)
- 강좌예약 - <http://cafe.daum.net/sungmisanorganic>
- 강좌문의 - 기린 011-695-7838

** 음식 재료료비와 공간 사용료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성미산대책위에 기부합니다.**

